



오늘의 말씀 - 토 (마 27:57-66)

요셉이 예수의 시체를 무덤에 넣어두다 (막 15:42-47; 눅 23:50-56; 요19:38-42)

57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58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59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60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 두고 큰 돌을 굴러 무덤 문에 놓고 가니

61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경비병이 무덤을 지키다

62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63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 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64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

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65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66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
을 굳게 지키니라

본문 이해

저물었을 때에, 예수의 제자인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무덤에 넣어 두고 큰 돌을 굴러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 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소서” 하니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적용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은 공회원이었고,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고자 하는 공회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사람이었고 (눅 23:51),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57). 니고데모의 도움을 받아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지내기도 했습니다.

이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버린 상황에 예수님의 시신은 이제 빌라도의 관심 밖이었기에 기꺼이 허락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예수님 생전에는 은밀히 예수님을 따랐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되자 오히려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냈습니다. 예수님의 11 제자들은 다 두려워 떨며 숨어있는데 요셉은 예수님을 위해 나서서 시신을 수습하고 자기가 예비한 무덤에 안장했던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그 무덤을 향하여 앉아서 예수님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안식일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

에게 가서 예수님의 무덤을 굳게 지킬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을 일컬어 “속이던 자”라고 하며, 예수가 생전에 “사흘 후에 살아나리라”고 한 것을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63).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믿지 못해 두려워 숨은 반면에,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런 일이 일어날까 봐 염려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이들의 요청도 기꺼이 들어주었습니다. 그에게는 다 끝난 일 가지고 법석을 떠는 요셉이나 이들이 다 어리석게 보였을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극약처방(?)을 통해서도 빌라도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고, 유대의 영적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완악함을 무덤처럼 더욱 굳게 지킬 뿐이었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기억도, 정도, 의리도 잊은 채, 달아나 숨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아리마대 요셉의 영혼을 두드려 깨웠고, 여인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의 발걸음을 돌아서게 했고, 나머지 제자들도 50일 이내에 (오순절) 모두 십자가로 돌아서게 했습니다. 십자가를 깨달으면, 소망의 길 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기도

십자가에 비친 요셉, 빌라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여인들, 그리고 제자들을 보며,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보게 하옵소서.

나는 십자가를 어떻게 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십자가 지고 가는 나 때문에 가정과 교회와 세상에 소망의 빛이 비치게 하옵소서.

신실하게 본향을 향해 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옵시고, 아가페회 어르신들 더욱 강건하게 하옵소서.

밤낮으로 수고하는 의료진들 위에 힘을 더하여주옵소서.

(주일 말씀: 마 28:1-10 무덤에서 생긴 일)